

# 국제 크루즈선 3년 만에 제주에 왔다

### 독일 국적 2만9000t급 아마테아호 어제 입항 9시간 가량 머물며 일출봉·전통시장 등 관광을 현재 50척 제주 입항 예약... 관광객 12만명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관광이 재개된 가운데 3년여 만에 제주항에도 크루즈선이 다시 들어왔다. 독일 국적 2만9000t급 크루즈선인 아마테아호가 16일 오전 7시쯤 제주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했다. 여행객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제주항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3년5개월만이다. 아마테아호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출발해 중남미와 일본, 한국, 동남아, 중동을 거쳐 5월 말 프랑스로 돌아가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국적 승객 500여명과 승무원 300여명이 탑승했다. 이 크루즈선은 지난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출발해 13일 속초항에 입항해 하루 머문 뒤 15일 부산항을 거쳐 이날 제주항에 도착했다. 이날 제주에 9시간가량 머무른 크루즈에서 하선한 관광객들은 전세 버스에 몸을 싣고 성산일출봉, 해녀박물관, 신비의도로, 용두암, 해안도로 등 관광지와 제주동문시장을 둘러봤다. 이날 아마테아호를 시작으로 오는 19일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영국 국적 11만5000t급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입항할 예정이다. 이 크루즈선은 승객 1500여명과 승무원 1100여명 등 2600여명을 태우고 일본 가고시마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후 9시간가량 머물 계획이다. 올해 제주 입항을 예약한 크루즈선은 총 50척(제주항 22척, 강정항 28척)이며,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방문객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 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2014년 59만400명(242회), 2015년 62만2068명(285회), 2016년 120만9106명(507회)까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실시 이후 중국 출발 크루즈의 제주 기항이 중단되면서 2017년 18만9732명(98회)으로 크게 떨어진 후 2018년 2만1703명(20회), 2019년 3만7714명(27회)으로 급감



16일 제주항에 입항한 독일 국적 2만9000t급 크루즈인 아마테아호(사진 왼쪽). 승객들이 제주관광을 위해 하선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춘분 앞뒤 비... 5~10mm 내릴 듯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21일)을 앞두고 봄 농사에 도움을 주는 비가 내린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방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7일부터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17일 오전(9~12시)부터 18일 새벽(0~3시)까지 강수량은 5~10mm 정도로 예상된다. 또 춘분인 21일 오후부터 다시 비 날씨가 예보돼 22일 오후까지

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수준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16일 13~17℃ 분포를 보인 낮 최고기온은 17일의 경우 13~14℃에 머물겠다. 또 주말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9~10℃, 낮 최고기온은 12~16℃로 예상된다. 해상에선 16일 제주도 서부앞바

다를 중심으로 강해지던 바람이 17일에는 제주도 전 해상으로 확대되면서 물결이 최고 3m까지 일겠다. 한편 지난 14, 15일 잇따라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한 만큼 기류에 따라 제주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외출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7일 금요일 음 2월 26일 (3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30%	성산	60%
60%	고산	60%
60%	서귀포	60%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 많음 9/13℃  
모레 ☀ 구름 많음 7/14℃

###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0℃, 낮 최고 기온은 13~14℃로 전망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 해돋이 06:42	☁ 달뜨기 03:39
🌅 해질 18:42	🌙 달짐 13:26
🌊 물때 만조 07:51	🌊 간조 00:19
🌊 19:19	🌊 14:17

🚑 식중독지수 관심    🛡️ 감기가능지수 관심

### 미세먼지 (PM10)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초미세먼지 (PM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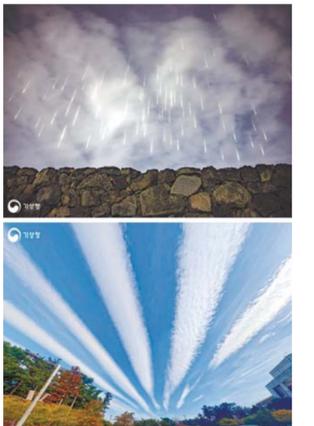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한림민속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세화민속오일장	5, 10	중문향토오일장	3, 8
함덕오일장	1, 6	표선오일장	2, 7
고성오일장	4, 9	대정오일장	1, 6

## 기상청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제주 하늘 수놓은 빛기둥·구름 수상

기상청이 주관한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지난해 10월 제주서 관측된 빛기둥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847점의 작품이 접수돼 경쟁 끝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해 심사위원 점수 50%와 국민투표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환경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구름에 반사된 오징어 배 불빛으로 가득 찬 가을 제주 밤하늘을 촬영한 윤석주씨의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 불화살(사진 위)'이 선정됐다. 이 사진은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윤석주씨는 "평화롭던 제주 하늘에 빛기둥이 보이기 시작했고, 난생 처음 본 광경에 두려움마저 느꼈다"며 "그날 뉴스를 보고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반사된 모습인 걸 알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또 동상에는 지난달 2일 촬영된 김도원씨의 '구름으로 그린 평행선(권적운)'이 수상했다. 김씨는 "한라도서관 주차장에서 마주한 권적운으로 먼 하늘까지 여러 개의 선의 모습을 띤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원기자



**누적 1,000만대 판매기념**

2023.03.10 - 04.30

무료 설치·수거 / 비데 필터 증정(2개)

새로운 계절엔 새 비데로 바꾸자

## 노비타 비데 보상판매

사용하시면 비데를 받겠다면 노비타 비데를 특별할인가로 제공해드립니다!

무료수거, 무료설치(타사 비데 가능) + 비데 필터 증정(2개)

2023.03.10 - 04.30

<h3>살균비데 BD-H700H0</h3> <p>#매일 자동살균 #3가지 수류 #3D무브 #강력방수</p> <p>5만원 할인 419,000- <b>369,000원</b></p>	<h3>3년무상A/S BD-AFE50N</h3> <p>#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p> <p>7만원 할인 299,000- <b>229,000원</b></p>	<h3>스마트플러스비데 BD-AC50N</h3> <p>#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p> <p>4만원 할인 239,000- <b>199,000원</b></p>
<h3>살균비데 BD-H500E0</h3> <p>#매일 자동살균 #자동노즐세척 #강력방수</p> <p>5만원 할인 335,000- <b>285,000원</b></p>	<h3>스마트비데 BD-N530A</h3> <p>#3년무상A/S #조작부상하조절 #바운스세정</p> <p>9만원 할인 349,000- <b>259,000원</b></p>	<h3>컴포트비데 BD-CD51N</h3> <p>#강력방수 #원적외선건조 #자동노즐세척</p> <p>9만원 할인 329,000- <b>239,000원</b></p>

구입문의 | 제주총판 및 A/S센터 064-758-0991

주소: 제주시 연삼로 17 WINIX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공평